

# 성인 손자녀의 조부모 동거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Adult Grandchildren' Experiences with Grandparents Cohabitation

성신여자대학교 복지학과

전임강사 조 윤 주\*\*

Dept. of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Full-time lecturer : Cho, Yoon-Joo

---

### <Abstract>

This study reported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the interviews with 26 adult grandchildren who had(or have) a cohabitation with grandparents. The research question was what adult grandchildren experienced in living with grandparents. Results indicated that "the aged" was described as generous and wise person, so they had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Participants perceived level of benefits of the coresidence with grandparents were higher than the costs in instrumental, material, and emotional supports. The relationship between grandparents and parents was generally intimate. It makes adult grandchildren advocate parents living together in the future. But adult grandchildren plan to get along independently when they grow old.

---

▲주요어(Key Words) : 성인 손자녀(adult grandchildren), 조부모 동거(grandparents cohabitation),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 I. 서론

몇 년 전부터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린 인구 구성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의 첫 번째는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어 국가적으로 노동력 규모의 감소가 초래되고 이는 곧 경제 활력을 둔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는 노인 부양 비용의 증가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부양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가령 노인의 존재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거나 연령차별(ageism)을 당연시하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가 요구되는 한편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성인 자신의 노후 준비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를 이해하려는 기본적인 접근은 주로 노인의 이미지를 조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대개 청소년이나 성인 초기의 개인에게 노인의 정형화된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는 형용사를 선택하게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서구에서 많이 시도되었다. 한국과 미국 대학생에게 이를 적용한 이신숙(2006)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관대한, 신뢰할 수 있는, 친절한, 낙관적인 등 노인들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미국 대학생들은 현명한, 신뢰할 수 있는, 박식한 등의 지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미지 평가의 차이는 문화권 뿐만 아니라 성, 연령, 조부모 동거 경험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

\* 이 논문은 2009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 of 2009).

\*\* 주 저 자 : 조윤주 (E-mail : bijucho@sungshin.ac.kr)

것으로 보고된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노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안옥희·임희경·김현진, 2002; 한정란·류희선·김기진, 2007).

노화에 대한 지식 또한 노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인지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노화로 인해 노인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건강하지 못 하고 비활동적이며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등 노화에 대한 태도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이신숙, 2006). 한정란 등(2007)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노화 사실 인지 척도의 정답율은 매우 낮아,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들 중 전공, 노인 관련 수업의 수강 여부, 수강 과목 수, 실습 및 자원봉사 경험 유무, 조부모와의 과거 동거 경험 유무 등에 따라서 노화 지식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중간 정도에 속하였는데, 전공별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노인 복지학 전공 학생이 가장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시 말하면, 대학생들의 노화 지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노화에 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이었다.

이처럼 노인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 노년에 대한 태도나 평가가 달라지며 접촉의 기회로 대표되는 것이 이들과의 동거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이미지나 노화에 대한 지식 또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변인은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유무이다. 조부모와의 동거에 관한 선행 연구들 중 주된 주제는 동거에 따른 결과로, 이는 다시 심리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조부모와 동거시 관련된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안녕감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청소년기나 대학생인 손자녀가 조부모와 함께 살 때 이들과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동거한 경험이 정서적 친밀감을 도모한다는 결과가 주로 보고된다(조병은·이미숙·강란해, 2002). 하지만 이 역시 접촉 빈도, 친조모 혹은 외조모인지의 여부와 문화적 차이, 조부모와 부모 관계의 질에 따라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일례로 한국 대학생들은 친조모와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조모와의 유대감이 높았던 반면 미국 대학생들은 친조모와 접촉 빈도가 낮을 때 친밀감이 높아 적당한 접촉 빈도가 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간 세대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친조모보다는 외조모와의 관계가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신숙, 2006). 그리고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조부모 부양 행동이 원만하다고 생각할 때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장윤옥, 2002). 후자의 경우 동거에 따른 혜택과 비용의 손익을 파악하는 것으로 가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에 관한 연구들은 혼하지 않았다. 윤순덕과 한정혜(1994)의 연구에서 혜택의 측정은 주로 손자녀 돌보기, 집안 청소, 세탁, 부엌 일, 집 봐주기, 주택 비용 절감, 자녀

교육 등으로 축약된다. 한편 비용의 측정은 경제적 부담, 심리적 부담, 가사일 부담, 사생활 부족, 생활 시간 차이, 행동 제약, 의견 충돌, 집 공간 협소 등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동거 여부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다. 이들과의 동거 경험이나 잦은 접촉, 유대 관계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거시 불만족스러움이나 불편함을 느껴 오히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 상황에 이루어지는 생활상의 과정을 통해 심리사회적인 역동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부모와의 동거라는 변인을 위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나 태도를 주제로 하거나, 동거시 다른 가족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또는 가시적인 영향을 살펴보기나, 부모 부양 계획 등을 다루어 단편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축적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를 통합,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시도된 연구는 드물 뿐 아니라 조부모 동거 경험 이면에 내재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상학적 접근을 이용하여 유년 시절 조부모와의 동거라는 공통의 현상을 경험한 성인 손자녀를 대상으로 조부모와 함께 한 생활이 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여러 개인이 체험한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고 이를 통해 경험에 대한 의식의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다(Creswell, 1998). 점차 개인주의 의식이 팽배해지고 부양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고 있는 현 세대를 감안할 때 본 연구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이번 연구를 통해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탐색하고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비용과 혜택의 측면을 분석함으로써 노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노인 부양의 주체로서 역할하게 될 성인 손자녀의 부모 부양 의식과 자신의 노후 생활 계획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II. 연구의 절차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유년기에 최소 3개월 이상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함께 산 경험이 있거나 현재까지도 같이 살고 있는 20대 초반의 성인 손자녀들이다. 이들은 기준(criterion) 표본 추출에 의거하여 선정되었는데, 이 연령대의 다수가 대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서울에 소재한 H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26명을 면접하였다. 이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한 이유는 연령대별로 노인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본 연구(이선자, 1989)에서 아동기는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청년기에 이르러 점차 부정적인 성향으로 변화하는 등 대부분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시기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 전후의 시기에 정립된 노인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취업 등 진로나 생애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의 사례 수에 관해 Polkinghorne(1989)은 현상학적 접근시 타당한 참여자의 수는 최소 2시간 이상의 심층적인 면접을 한 경우 10명 정도가 적당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Patton(2002)은 질적 연구의 타당성이나 유의미성, 통찰력 등은 사례 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연구 참여자가 얼마나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연구자가 이를 어떻게 분석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양성은, 2005,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이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라는 현상이 연구 참여자에게 미친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방법론적인 면에서 26명의 사례 수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성인 손자녀의 연령은 18세부터 28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23.1세이며, 성별로는 남학생 20명, 여학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전공은 청소년학, (사회)체육학, 무용학 등으로 전공에 따른 노년기 지식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순위는 8명이 첫째였으며, 둘째이거나 막내는 나머지 18명이었다. 동거하는 가족은 부모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었는데 이 중 한 참여자는 어머니만 계셨고, 어렸을 때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6명이었다. 동거했거나 동거하는 노인과의 관계는 20명이 친조모 또는 친조부로 이 중 6명은 친조부모 두 분과 같이 살았으며 친조부가 돌아가신 후에도 친조모와 사는 경우는 2명이었다. 나머지 6명은 외조모와 동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자영업(9명), 회사원(5명), 공무원(4명)과 사업(4명) 등의 순이었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자영업이 8명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26명 중 12명으로 참여자의 반수에 약간 못 미쳤다. 총 가계 수입은 현재 수입이 없는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월 1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평균 326만원이었는데 중산층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거주지는 모두 서울 및 수도권이었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2.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해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연구에 대한 일련의 절차들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게 하여 자택이나 학교 강의실, 찻집 등에서

수행되었으며,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최소 1시간에서 최대 2시간 20분 가량이었다. 이들에게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여 조부모 동거 경험의 현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발현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인 손자녀들이 개념화하는 노인의 의미는 무엇이며, 조부모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손자녀 자신이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 조부모와 부모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의 상호작용과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면접 내용은 참여자의 승인하에 녹음하였고 면접을 마친 다음 추후 면접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후 종료하였다.

녹음한 면접 내용은 전사하였고 이렇게 하여 획득된 원자료는 다독하여 먼저 사례내 분석을 실시한 다음 사례간 분석을 하였다. 우선 각각의 개인이 어떻게 조부모 동거를 경험하였는가에 대한 진술과 유의미한 진술을 나열하는 수평화 작업(horizontalization)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진술들을 의미군으로 분류한 후 축약하여 조직적으로 기술하였다(textural description). 다음으로 필자의 기술을 반성하여 구조적 기술(structural description)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가능한 모든 의미와 다양한 관점들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최종적으로 경험의 본질(essence)에 대해 전반적인 기술을 구성하였다.

## 3.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화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뢰성과 타당화 검증으로 첫째, 외부 검토의 시각을 이용하고자 내용을 윤독하여 동료 검토(peer review)를 하였다. 필자는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없으므로 가질 수 있는 외부자 시각(etic view)을 통제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살았던 동료의 내부자 시각(emic view)을 참고하여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부정적인 사례 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통해 부정적인 증거를 탐구하여 작업 가설을 수정하였다. 즉, 잠정적인 연구 결과와 불일치하거나 반대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예외 사례의 독특성을 재검토하여 결과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리를 구축하였다. 끝으로 다원화(triangulation)를 이용하여 관련 문헌 등 다양한 자료원을 포함하여 결과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였다.

## III. 연구의 발견

본 연구는 한국 가족의 주요 생활 방식이었던 확대가족내 노부모 부양이라는 규범화된 전통을 중심으로 조부모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겪었던 경험을 손자녀의 관점에서 현상학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일차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개념화하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조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조부모-

&lt;표 1&gt;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

사례	연령	성별	전공	출생 순위	동거가족	동거노인과의 관계	직업(부/모)	총 월 가계 수입(만원)
# 1	25	남	청소년학	막내	조모/부/모/1남 3녀	친조모	자영업/주부	200-400
# 2	24	남	청소년학	막내	조모/부/모/1남 1녀	친조모	공무원/자영업	500
# 3	28	남	청소년학	장남	부/모/3남	친조부모	자영업/회사원	350
# 4	20	남	청소년학	막내	부/모/2남	친조모	공무원/주부	200
# 5	21	남	체육학	막내	부/모/2남	외조모	건축/주부	200
# 6	23	남	청소년학	장남	부/모/1남 1녀	친조모	사업/사업	300
# 7	24	남	농학→청소년학	막내	부/모/2남	친조부모	자영업/주부	200
# 8	23	여	무용학	막내	부/모/1남 1녀	친조모	- /주부	-
# 9	24	남	체육학	막내	부/모/2남 1녀	외조모	회사원/주부	300
#10	21	여	청소년학	차녀	부/모/3녀	친조모	자영업/자영업	300
#11	24	남	사회체육학	막내	조모/부/모/2남	친조모	회사원/주부	300
#12	24	남	체육학	장남	조모/부/모/1남 1녀	친조부모→친조모	사업/교사	700
#13	19	여	무용학	막내	부/모/1남 2녀	친조부모	회사원/주부	250
#14	22	남	청소년학	막내	부/모/1남 1녀	친조모	자영업/자영업	200
#15	24	남	청소년학	막내	부/모/1남 2녀	친조모	사업/주부	300
#16	23	남	체육학	막내	모/1남 2녀	친조모	주부	250
#17	18	여	무용학	막내	부/모/3녀	친조모	자영업/자영업	600
#18	21	여	무용학	막내	부/모/1남 1녀	외조모	사업/주부	500
#19	25	남	청소년학	막내	부/모/1남 1녀	외조모	회사원/주부	300
#20	22	남	사회체육학	장남	부/모/1남 1녀	친조모	건설업/보험회사	200
#21	24	남	청소년학	장남	부/모/1남 1녀	외조모	자영업/자영업	250
#22	24	남	청소년학	막내	조모/부/모/1남 1녀	친조모	공무원/자영업	500
#23	25	남	사회체육학	장남	부/모/2남	친조부모	공무원/주부	400
#24	26	남	체육학	장남	부/모/2남	친조모	회사원/주부	200
#25	26	남	체육학	장남	조모/부/모/1남 1녀	친조부모→친조모	자영업/자영업	400
#26	21	여	청소년학	막내	부/모/1남 1녀	외조모	자영업/자영업	150

손자녀 체계, 조부모-부모 체계, 자녀-부모 체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노인에 대한 개념화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 손자녀들이 연상하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들에게 “노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먼저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주름살·흰머리·흰색 등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 병약함이나 나약함·쇠약함으로 대표되는 건강상의 취약점과 더 나아가 치매·관절염 등의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조부모가 노쇠한 결과로 생활에 필수적이게 되는 돌보거나 지팡이, 지하철 경로석을 연상하였다. 반면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생활의 지혜·경륜·연륜 등 이들의 오랜 삶에서 묻어나는 부분들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노인을 지식 뿐 아니라 지혜의 근원이자 본보기로 인식하였다. 또한 정서적인 측면에서 따뜻함, 편안함, 푸근함, 인자함, 정, 사랑, 착함, 잘 웃음 등을 떠올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느낌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한편으로 조부모의 모습에서 손자녀가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 쓸쓸함, 무료함 등도 있어 여러 감정이 공존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이미지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고정관념이란 대상에 대해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된 것으로 개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 노인에 대한 태도 역시 유사한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Kogan(1977)과 Tronstam(1986)은 이에 대한 구성 요소로 정서적 측면과 지식적 측면, 행동적 측면을 언급하였다. 이들은 개인이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범주화한 상황적 틀에 근거, 개별적인 자극을 인식하고 반응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지적 요소는 범주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어 감정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감정적 요소가 오히려 인지적 요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결국 인지적 과정은 감정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직접 조부모와의 동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피상적인 사고에 의존하여 노인의 이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비교적 실체와 근접한 평가를 하게 되는 정확성이 있다. 손자녀들은 노인을 부족함이 많은 취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들의 조부모에 대한 정서적인 평가는 온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감정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며 결과적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는 행동적인 면에도 동일한 영향을 끼쳐 노인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기보다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하여 보다 많은 도움 제공의 행동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면접 자료에서 각각의 측면으로 범주화한 의미들을 종합하여 이야기책에 나타나는 등장 인물에 비유한다면 성인 손자녀들에게 노인이란 이미지는 늙고 고집 센 마귀 할멈보다는 어진 현인의 모습을 지닌 가령 산신령과 같은 형상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할아버지·할머니라는 공식적인 호칭, 노인정·복지관 등 공간적인 명칭과 이 연령대의 주요 여가 활동인 고스톱·화투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는 노년기의 활동 공간과 놀이 문화가 한정되어 있고 편협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어 다양한 사교 공간과 활동의 개발, 보급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 2. 손자녀에게 무한한 지원 제공자로서의 조부모

우선 조부모와 동거시 좋았던 점은 대략 도구적 지원, 물질적 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도구적 지원은 연구 참여자의 부모가 맞벌이를 할 경우 주로 언급되어 조모가 식사나 간식을 준비해 주시거나 등교시 옷과 준비물, 도시락을 챙겨 주셨고 심지어 집안 살림을 전담하셨다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며느리나 딸이 취업 중인 경우 조모와 손자녀의 상호의존적인 경향은 다른 가족 형태에 비해 두드러지고 특히 조모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부모님이 슈퍼를 하셔서 옷이나 밥을 많이 챙겨 주셨어요. 엄마 역할 대신이었죠(#8).

부모님이 일찍 나가시면 할머니가 키워 주셨어요. 아침밥도 차려 주시고 도시락도 싸 주시고. 집에 오면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9).

둘째, 물질적 지원에서는 용돈을 주셨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셋째, 정서적 지원의 측면으로 꾸지람을 들을 때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거나 혼날 때 감싸주신 점, 조부모의 존재 덕분에 든든하고 덜 외로웠으며 예뻐해 주셔서 마음의 위안 또는 안정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모두 취업중일 때 빈번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조부모에게 받은 도움은 서비스적, 금전적 지원외에 정서적 보호막으로서, 대리 양육자로서, 지혜와 근면함을 학습할 기회의 제공자로서 등 다양하였다. 결국 조부모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영역에 상관없이 무한한 지원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이 많아서 따스한 미소로 맞아 주시고 안아 주셨어요. 덕분에 가정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구요(#12).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1).

어릴 때 혼나면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죠(#3).

놀아주시고 정서적으로도 편했고 할머니 때문에 덜 혼나기도 했어요(#15).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특성에 준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흔히 부모 자녀 관계는 가족주의안에서 알파 관계(최하위 세대의 부모와 자녀 관계)와 오메가 관계(최상위 세대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부모와의 동거는 성인 자녀에게 세대간 갈등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취급될 수 있으며, 특히 고부의 역할 갈등은 가족 관계의 주요 문제로 규정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세대 가족에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중간 세대가 존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충될 수 있고 원만한 관계만으로 유지되기 쉬운 조건이다. 조부모 역할에 대한 초기 연구들이 이를 '책임감 없는 즐거움'의 근원으로 언급한 것이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Kivett, 1985).

이처럼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지자로 역할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자녀는 일방적인 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본 연구의 면접 결과 손자녀가 받은 보상으로 의식주에 관련된 도구적인 도움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정서적 지지와 같은 비가시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하였다. 대개 자녀에게 부모가 일차적인 주 애착 대상으로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지만 동거하면서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한 조부모 또한 애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더욱이 성인 자녀가 맞벌이일 경우 조부모와 손자녀의 결속이 보다 긴밀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의 경우 조부모에게 받은 용돈의 액수가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소액일지라도 연구 참여자의 연령이 어려서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서를 볼 때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지원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제공이었을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자녀는 조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비용보다는 보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부모와 같이 살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불편했던 부분도 일부 보고되어 생활하면서 세대 차이를 느끼거나 개인적인 생활을 존중 안 해 주시고 잔소리를 하는 등의 간섭이 있었던 점,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요하거나 예의를 중시하는 것 등이 있었다. 그리고 조부모의 지력과 체력이 떨어지면서 수발을 도와야 되는 부담감을 토로하였다.

놀다 늦게 오면 혼나서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일찍

귀가해야 했어요(#3).

개인적인 면을 존중해 주지 않으셔서 자꾸 방에 들어오 시고 물건 만지고... 언어와 생각에서 세대 차이가 나구요. 사투리도 잘 못 알아듣겠구요(#17).

이해력이 떨어지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 해서 약간 답답 했어요(#12).

연세가 드셔서 못 움직이실 때 업어드려야 했고 더 챙겨 드려야 했구요. 사소한 것도 같이 해 드려야 했죠(#9).

대개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에는 의견이나 가치관, 행동, 사고 방식 등에 세대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도 가족내에서 느끼는 '직계 가족내 세대 차이'가 본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 세대 차이 지각에도 차이가 있어 손자녀 세대는 직계 가족내 세대 차이가 큰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조부모 세대는 이는 사회 일반에서의 차이일 뿐 자기 가족내에서는 그 차이가 적은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부모와 손자녀가 지각하는 세대 차이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갈등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인의 경우 이들은 가족내 자녀, 손자녀들과는 가능한 한 세대 차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노부모와 젊은 세대간 의견 대립이나 태도 차이가 크게 되면 양편 가운데 노부모쪽이 양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이 두 세대 간에 의견 충돌로 인하여 인간 관계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면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 온 노부모가 투자를 적게 해 온 손자녀 세대보다 손해를 더 보게 되기 때문이다. Waller(1938)는 이를 '최소 이해의 원칙'이라고 칭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손자녀 세대에 비해 일상 생활의 협상 과정에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윤진, 1983, 재인용). 그러므로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위치이므로 손자녀가 경험하는 불편의 양이 조부모보다 적을 수 있다.

노인 세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자녀가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만 있고 싶을 때 조부모의 존재가 부담스러웠거나, 할머니의 몸이 불편해서 가족 여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완충 장치로 이용해서 힘들었다는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 중 한 참여자는 아버지가 세 번 결혼을 해서 가족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였다. 하지만 특별히 불편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도 상당하였다.

다음으로 지원의 교류 현황은 손자녀들이 아직 독립된 성인으로서 역할하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불충분하여 비용보다는 혜택을 받은 면이 더 많았다. 따라서 손자녀가 조부모께

해 드린 일들은 안마나 말벗, 이야기 상대가 대부분이었다.

몸이 편찮으셔서 어깨 안마 해 드리고 이야기 상대 해 드린 거요(#4).

또는 심심하지 않도록 재롱 부린 것, 카네이션 달아 드린 것 등의 내용이 있었다. 노안의 시기임을 반영하듯 안경을 해 드린 것, 교회나 병원, 노인정을 같이 모시고 다니거나, 조부가 텃밭을 가꿀 때 도와 드렸거나, 식사를 챙기거나 용돈을 드리는 등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반면 너무 어려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잘 해 드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자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다는 경우도 있었다.

매일 운동시켜 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음식도 사다 드리구요(#1).

카네이션 달아 드린 거... 청소나 설거지 도와 드린 거요(#6).

같이 살면서 본인이 조부모에게 받은 도움은 앞서 언급했던 살면서 좋았던 점과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삶의 지혜나 예의범절을 배울 수 있었다든지, 부모에게 혼날 때 울타리가 되어 주시거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점, 부모 대신 식사나 세탁 등 가사를 담당해 주시거나, 용돈 또는 장난감을 많이 사 주신 것 등을 언급하였다.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인데 사회 생활에 큰 밑거름인 근면이나 성실을 배울 수 있었어요(#3).

혼날 때 말려 주시고 늦게 올 때 문 열어 주신거요(#18).

할머니가 부모님 대신 학교에 오셨고 아침을 꼭 챙겨 주셨어요(#6).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지였어요(#21).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부모와 기혼 자녀의 관계를 접근한 연구들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녀에게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호혜적인 지원 체계임을 가정하고 이것이 경험적으로도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전과는 달리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로 인해 성인 자녀가 노부모에게 동거를 요구하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다. 취업중인 기혼 여성은 부모가 대신 가사나 손자녀를 돌보아

주어 이런 경우 성인 자녀는 비용보다 보상을 지각하는 정도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익의 측면이 많다고 하더라도 동일 공간에서의 주거는 가정내에서 사생활을 억제하게 하고 가족원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게 되어 갈등이 초래될 수도 있다. 노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는 비용의 측면으로 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보고하나(서병숙·장선주, 1990), 맞벌이 부모를 둔 자녀는 조부모에게 지원 제공자이기보다는 전적으로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점이 많은 관계라 할 수 있다. 심리적인 측면이 비용으로 간주되는 비중이 컸던 성인 자녀와는 달리 손자녀는 심리적인 유대를 오히려 보상으로 생각하여 대리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조부모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3. 동거 경험의 본보기로서 조부모와 부모의 관계

연구 참여자가 지각한 조부모와 부모와의 관계는 대다수가 원만하거나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여서 조부모와 부모가 집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적은 경우 갈등 발생의 빈도 역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가 전업주부인데 조모가 가사에 많이 참여하려 하고 참견을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체계 이론의 주장과 같이 하위 체계의 모든 부분은 모빌과 같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조부모-부모 체계는 조부모-손자녀 체계, 부모-자녀 체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고부간 갈등이 있을 경우 고부 당사자들 뿐 아니라 모자 관계, 아들 부부 관계, 손자녀 관계까지 부정적이게 되며 반대로 관계의 질이 높다면 나머지 관계에서도 친밀한 양상을 보이기 쉽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의 질과 접촉의 양은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관계의 질, 그리고 접촉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는데(장윤옥, 2002),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자녀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참 친근하고 화목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14).

관계는 좋으셨어요. 부모님이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마찰이나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10, #17).

할아버지는 권위적이셨는데 할머니가 연세가 많았지만 가정 일을 많이 하셔서, 어머니는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고...(#12)

좋은 편이었지만 가끔씩 말다툼으로 집안이 시끄러운 때도 있었어요(#8).

아버지는 자신의 친부모인 경우 보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어머니도 자신의 친부모와는 특히 관계가 더 좋았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아직까지는 부계 중심의 부모 부양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시부모 부양에 대해 별 다른 반감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의무감이 수반되는 관계이므로 며느리가 실질적인 부양 행동을 전담하면서 부양 부담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딸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고부간에 경험하는 갈등 유형이 나타나지 않으며 정서적 유대가 우선되므로 이들간에 형성된 강한 애정적 결속은 손자녀에게도 부지불식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ing & Elder, 1995). 이처럼 자신의 원가족을 모실 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으므로 모계 중심의 부양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고, 아버지는 친어머니니까 더 편안한 관계였지요(#6).

참 좋았고 어머니가 잘 모셨던 것 같아요(#15).

아버지는 효심을 다해 모셨고 어머니는 병수발에 지치셨던 것 같아요(#16).

비교적 잘 지냈어요. 외할머니라서...(#18).

아버지도 외할머니가 외로우시니까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1남 3녀 중 막내임에도 불구하고(#9).

### 4.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식

손자녀는 삶의 경험이 많은 조부모로부터 문화와 가족의 역사를 전달받음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하게 된다는 Baranowski(1982)의 주장과 같이 이들과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계의 지속과 안정성을 계획하게 된다. 조부모와 동거한 본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향후 자신의 부모 부양에도 긍정적이었으며 조부모와 부모의 관계가 좋았을 때 찬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삼대가 같이 살면 예의범절을 배우거나 가정교육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처럼 조부모와 같이 살면서 경험한 화기에애한 가족 분위기는 이들이 부모 부양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자녀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적합한 습관화된 행동이 없을 경우 행동준거로 삼는 것이 부모의 언행과 생활 태도이며 이로부터 내면화된 가정교육이다. 손자녀는 부모가 조부모를 부양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경험하였으므로 부모 부양에 대한 일종의 도식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말로 좋아요. 삼대가 같이 사면 배울 게 많고 2세가 예의범절이나 가정교육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3).

같이 살 거예요. 애들 교육상에도 좋고 더욱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14).

아이 낳으면 내 아이가 조부모님과 일정 기간 이상 함께 살도록 할 거예요(#21).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부모의 행동을 본 받지 않을까 싶어요(#23).

영향... 엄청 크죠..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커서... 형하고 번갈아 가며 모시고 싶습니다(#9).

하지만 출생 순위가 부모 부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차남인 경우는 장남이 모실 것으로 생각하거나, 반대한다는 응답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면접자는 동거시 세대 차이로 인해 의견 충돌이 많아서 힘들었다는 어려움을 표현한 경우였다. 한편 남학생은 처가 부모의 부양에도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어려서 외조모와 같이 산 경험이 있을 때 처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처가에 아들이 없으면 같이 살아도 좋아요(#2).

대화가 잘 통한다면 충분히 어울려서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12).

불편한 점이 많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부모 모시듯 잘 모셔야죠(#15).

처가 장모가 외롭다면 당연히 모셔야죠.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으니까요(#9).

그렇지만 처가 부모와의 동거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남학생도 상당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시가 부모 부양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 공존하였다.

제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서 남자가 뭐 데릴사위를 하는 것은 부정적이예요(#24).

좋은 시부모님 만나면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8).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요. 가사나 육아를 의존하는 거

싫구요. 제한받고 눈치보고... 어른들 때문에 위축되고... (#10).

체계 이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가족에서 통용되는 규칙은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조절하고 상호간 행동을 예측하는 기능을 한다. 일관성 있는 규칙은 가족 모두의 행동을 조절하므로 가족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규칙들은 모든 가족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따르는 지침이기도 하지만 대개 가족별로 독자적인 특성을 반영하며, 자신의 원가족에 기원을 두고 규칙을 발달시키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조부모와의 동거는 이들에게 부모 부양을 당연시하게 하는 일종의 가족 규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 부양을 해야 한다거나, 어려서부터 조부모와의 동거가 익숙하기 때문에, 혹은 동거 대상이 외조부모였기 때문에 등 이는 참여자에게 명시적인 규칙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을 수도 있다.

한편 부모 부양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으로 사회적 의무 이론이 있다. 사회적 의무 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성인 자녀가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에 기초하여, 부모가 연로해지면 이들을 부양하는 일은 자녀의 의무 또는 책임감이라는 신념을 계속 누적하면서 자녀가 성장한다고 제안하였다. 부양 의무감은 인류 역사상 부양의 주요한 동기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성인 자녀가 주저없이 부양을 선택하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효 사상의 전통이 잔재하고 있고 더욱이 자신의 부모가 조부모를 부양한 선례를 볼 때 이들이 부모 부양 의식이 강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생각된다.

## 5. 연구 참여자 자신의 노후 준비

조부모와 함께 산 경우 장점으로 언급되는 것 중의 하나는 노후나 노년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증가하고 더불어 자신의 생애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가 노인이 되었을 때 바람직한 노후 준비로는 대부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저축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들은 금전적인 자립을 희망할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여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부 위주의 삶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반면 자신의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아 부양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부모 부양에 대해서는 가족 중심의 사적 부양을 고수하여 전통적인 기대에 부응하려는 입장이 강하지만 정작 자신은 독자적이기를 위해 부양에 대한 사고가 과도기적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가족내에서 부부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젊은 이들의 사고를 표현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인식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배우자와 함께 건강 잘 유지해서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돈 많이 벌어서 노후엔 즐기며 살고 싶어요(#8).

자식 잘 키워놓고, 나 자신에 대한 교육과 여가 활동을 위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배우자와 편하게 생활하고 싶습니다(#12).

일정 기간 내 자식, 손자와 함께 살고 싶지만 그들에게 의지하고 싶지는 않고, 노후의 경제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21).

우리 부모님처럼 자식한테 손 벌리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식들 도움없이 그냥 편안하게 와이프랑 오래오래 사는 게 제일 좋은 준비인 것 같아요(#24).

자기 생활에 불편이 없을 만큼 돈이 필요할 것 같구요.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던지... 자식에게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자기 생활이나 노후에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26).

한편으로는 일을 계속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건강 유지와 재정적인 측면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Maslow(1966)가 인간의 욕구 단계에도 위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처럼 생리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 위주에서 점차 상위의 욕구 충족과 관련된 것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당한 객관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로 노인이 되어서도 활발한 사회 활동 참여와 이를 통해 자신의 역할 찾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등으로 준비하고, 농대 전공이니까 부가적으로 농사지을 생각도 해요(#7).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서 계속 책임지고 어딘가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받으며 살고 싶습니다(#17).

#### I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성인 손자녀의 조부모 동거 경험이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지원의 교환 정도, 부모 부양 의식과 향후 자신의

노후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현상학적 접근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중 이들이 의존적, 비생산적, 고집스럽다는 등의 부정적인 면이 많을 수 있으나(Palmore, 1998), 조부모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와는 상반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다(안옥희 등, 2002; 이금룡, 2004; 한정란 등, 2007). 이금룡(2004)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한 결과, 노인 문제에 관심이 적을수록, 조부모 방문 횟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가깝게 지낸 조부모가 없을 경우,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의 정형화된 이미지를 파악하는 작업을 선행하였는데, 이는 인지적 과정과 감정적 요소, 행동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Kogan, 1977; Tronstam, 1986). 본 연구 결과 노인에게 연상되는 이미지로 신체적인 측면에서 노년기를 건강함보다는 병약함이 우세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인지적인 측면에서 지혜와 연륜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인 쇠퇴나 상실분은 정서적인 면이나 인지적인 측면의 장점으로 상쇄된다. 손자녀들은 이러한 장점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각하여 결과적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며 적극적인 부양 행동과도 연관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나 환원하면 조부모로 대표되는 노인 세대와의 접촉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노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노년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 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노인에 대한 평가는 이들이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에게서 받는 지원이 많을수록 태도 형성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성립된다. 대체로 노부모와 동거하는 확대가족의 경우 사회교환론적 관점에서 성인 자녀가 부양 부담을 갖게 되어 혜택보다는 비용의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동거는 곧 부양과 동의어로서 간주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맞벌이나 자녀 양육 등 기혼 자녀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원의 교류 현황이 단순히 일방향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이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 관계에서 뿐 아니라 조부모와 손자녀간 관계에도 해당된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조부모와 동거하면서 경험한 장점과 단점, 조부모가 자신에게 해 주신 것과 자신이 조부모께 해 드린 것에 대해 혜택과 비용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도구적, 물질적, 정서적 지원의 측면에서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혜택의 양이 비용보다 훨씬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손자녀가 이와 같이 지각하는 데에는 자신이 조부모의 내리

사랑의 대상이 되기 용이한 위치이며, 맞벌이 부모의 자녀인 경우는 조부모가 애착 대상으로서 주된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세대차 등의 불편함이 있어도 손자녀 세대는 굳이 이를 극복하려는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라는 점 등에서 비용보다 보상이 더 많은 관계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부모가 모두 취업중일 때 손자녀에게 이점이 더 많았는데, 본 연구 참여자의 조부모 역할은 '대리 부모 유형'이나 '지혜의 원천형(Neugarten & Weinstein, 1968)' 또는 '훈육자의 역할', '대리모의 역할(Kornhaber & Woodward, 1981)'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참여자의 부모 중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노부모와의 동거는 여러 측면에서 비용 대비 상당한 수준의 혜택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사나 손자녀 돌보기 등은 성인 자녀에게 직접적인 이점이 되는 동시에 손자녀에게도 동일한 결과일 수 있다. 이들에게 끼니를 차려주고 용돈을 주는 등의 가시적인 도움 제공 행동 뿐 아니라 부모 대신 안정적으로 양육을 전담하며 심리적인 안식처로 역할하였다는 것은 성장기 손자녀의 인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조부모는 손자녀의 지지 체계를 확장시킨 것 외에 기초적인 생활 지도와 지혜를 전수하는 훈육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반면 연구 참여자의 연령상 이들이 조부모께 제공한 지원들은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직 취약한 여건이므로 말동무나 안마 등에 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손자녀들이 이를 비용으로 생각할 만큼 과다한 희생이나 요구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 동거 경험이 긍정적인 기억으로 각인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조부모와 동거한 시기는 유년 시절에 한정되었던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지금도 같이 사는 성인 손자녀들은 이전 시기보다는 조부모께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노인정에 모셔다 드리거나, 용돈을 모아서 군대 가기 전에 안경을 맞춰 드렸든지, 같이 운동을 하는 등의 활동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 활동이 원조 활동이나 동반 활동, 사교 활동의 순서로 나타난 이영숙과 박경란(2000)의 연구와도 유사한 것이다.

하지만 동거에 따른 혜택이 크다 하더라도 동일한 주거 공간 거주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편함과 세대간 갈등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일부 면접자는 조부모의 존재를 부모와 자녀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자는 혜택보다 비용의 측면이 더욱 큰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과 동거시 득과 실을 고려할 때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의 질에 매개 역할을 하는 변인 중 어머니의 태도는 주요 결정 변인으로 지적된다(이신숙, 2006; 이영숙·박경란, 2000; 장윤옥, 2002). 같이 살면서 손자녀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조부모-부모간 관계는 손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가 사이가 좋았던 경우 동거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이다. 그러나 반대의 상황이거나 부모가(특히 어머니) 치매에 걸린 조모를 모시면서 극도의 디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는 손자녀의 인식에도 부정적이어서 상기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조부모와 부모와의 동거 결과는 성인 손자녀가 향후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려는 계획과도 연관된다. 최경숙(1998)의 연구에서처럼 효에 관한 행동은 유년기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와 부모와의 상호 교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참여자 대부분이 결혼 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처가 부모 부양에 대해서도 비교적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가족 관계의 특성에 따라 친가는 의무감이 강조되며 외가는 친밀함이 우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이신숙 2006), 여학생은 시부모와의 동거에 대해 양가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남녀학생 모두 본인의 노후 계획은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립의 의지가 강하여 경제적인 측면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독자적인 생활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저축을 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을 선호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꾸준한 건강 관리를 통해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 일부는 노년기에도 계속적으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부 중심의 생활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볼 때 조부모와 접촉 경험이 세대간에 정서적인 친밀감을 증가시키고 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우호적이게 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받은 혜택을 많이 지각할수록 노인을 유능하고 유용하며 가치있는 대상으로 개념화하는 토대가 되기 쉽다. 취업 여성과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볼 때 조부모의 역할이 대리 양육자로서의 역할과 물질적 또는 서비스적 지원자로서의 역할, 정서적 지지원과 사회화의 본보기로서의 역할 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부모 스스로도 이를 통해 자신을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자아 존중감이 고양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조부모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살면서 원만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였을 경우 삼세대 동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어서 부모 부양에도 호의적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적 부양이 사적 부양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활성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공적 부양으로 충족되지 못 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므로 확대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가 도시로 한정되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조부모와 동거한 기간이 과거로 종료되었거나 현재에도 지속되는 사례가 혼재되어 전자의 경우 회고적인 기술에 치우친 면이 있다. 그리고 성인 손자녀만을 면접하여 일방의 의견을 분석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부모 등 더 많은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은 부양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했던 이전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달리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재인식하여 노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노인상을 정립하고 여러 가지 지원 제공의 주체로서 노년기의 잠재력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동시에 조부모로 대표되는 노인과의 접촉 경험은 성인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는데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접근을 하여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조부모 동거 경험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참 고 문 헌】

- 서병숙 · 장선주(1990). 노부모와 기혼 자녀간의 생활 교류 연구-아들 동거 노인과 딸 동거 노인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8(3)**, 171-186.
- 안옥희 · 임희경 · 김현진(2002).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의 이미지에 관한 조사.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347-355.
- 양성은(2005). 고 3 수험생 어머니의 입시 준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49-61.
- 윤순덕 · 한경혜(1994). 도시 기혼 여성이 지각한 부모와의 동거에 따른 혜택-비용. **한국노년학**, **14(2)**, 105-120.
- 윤진(1983). 건강한 가족관계를 위한 심리학적 접근-부모와 자녀 및 노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50**, 83-97.
- 이금룡(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 모색. **노인복지연구**, **26(겨울호)**, 143-164.
- 이선자(1989). 각 연령군별로 살펴본 노인에 대한 태도와 심리학적 고찰. **한국노년학**, **9**, 79-91.
- 이신숙(2006). 한 · 미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조모-손자녀간의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53-68.
- 이영숙 · 박경란(2000).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 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6.
- 장윤옥(200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조부모 부양 행동과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이 청소년의 노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1)**, 191-207.
- 조병은 · 이미숙 · 강란혜(2002). 한국과 일본 취업모 가정의 조모 역할과 조모와 손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1(3)**, 213-229.
- 최경숙(1998).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한 효 의식과 효 행동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5(2)**, 128-147.
- 한정란 · 류희선 · 김기진(2007). 대학생들의 노화에 관한 지식 및 노인에 대한 태도. **직업교육연구**, **26(3)**, 121-139.
- Baranowski, M.(1982). Grandparent-adolescent relations: Beyond the nuclear family. *Adolescent*, **17**, 575-584.
- Creswell, J. W.(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Thousands Oaks: Sage.
- King, V. & Elder, G. H.(1998). Perceived self-efficacy and grandparenting. *Journal of Gerontology*, **53(5)**, 249-257.
- Kivett, V. R.(1985). Grandfathers and grandchildren: Pattern of association, helping, and psychological closeness. *Family Relations*, **34**, 565-571.
- Kogan, N.(1977). Attitude toward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io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44-54.
- Kornhaber, A. & Woodward, K. L.(1981).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The vital connection*. N.Y.: Anchor press.
- Maslow, A. H.(1966). *The psychology of science: A reconnaissance*. N.Y.: Harper and Row.
- Neugarten, B. L. & Weinstein, K.(1968).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s. In Neugarten, B. L. (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lmore, E. B.(1998). *The facts of aging quiz*. N.Y.: Springer Publishing Co.
- Polkinghorne, D. E.(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N.Y.: Plenum.
- Tronstam, L.(1986). Gerontology in dynamics society. In Haraven, T. K. & Kathleen, J. A. (Eds.), *Aging and life course transitions: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N.Y.: The Guilford Press.

□ 접수일 : 2009년 01월 15일

□ 심사일 : 2009년 02월 06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03월 18일